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송아지와 바꾼 무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부지런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는다.  
• **주제** : 성실, 권선징악

핵심어 **성실, 권선징악, 무, 사또, 송아지, 욕심쟁이**

한국문화  
• **목표** :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한국의 김장 문화를 배운다.  
• **요소** : 김장

한국어  
• **목표** : 생명이 자라는 모습과 관련된 표현을 배운다.  
• **단어** : 무럭무럭, 토실토실  
• **표현** :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송아지가 토실토실 컸어요.





##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송아지와 바꾼 무'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로 만들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를 가늘게 썬 무채도 있고, 무를 말린 무말랭이도 있고, 무를 넣고 끓인 뭇국도 있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무로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무로 송아지를 갖게 된 농부가 있대요. 무와 송아지를 바꾼 농부 이야기 들어 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송아지와 바꾼 무'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농부와 게으르고 욕심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마음 착한 농부는 비가 와도, 햇볕이 짹짹 내리쬐어도, 하루도 쉬지 않고 밭에 나가 일했어요.

한편, 욕심쟁이 농부는 욕심만 많고 게을러서 툭하면 마음 착한 농부에게 자기 밭일을 맡겼지요.

“이보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하는 김에 우리 밭도 매주면 안 되겠나?”

“되지, 왜 안 되나? 자네 밭까지 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돌보게.”

마음 착한 농부는 불평 한번 없이 욕심쟁이 농부의 밭일을 도와주었어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열심히 일한 마음 착한 농부의 밭에는 온갖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여보, 오늘은 무를 모두 뽑아야겠소. 무로 김장도 하고, 남은 것은 장에 내다 팝시다!”

“네, 그렇게 해요. 올해는 무 농사가 잘된 거 같아요.”



## 이야기 들려주기

역시 마음씨 착한 아내가 말했어요.

무밭에 간 농부는 무를 쓱쓱 뽑았어요.

“어이쿠! 무슨 무들이 이렇게 커?”

농부는 잘 자란 무를 보자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어요. 농부는 열심히 무를 뽑았어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남은 무를 뽑으려는데, 어찌나 큰지 아무리 힘을 써도 좀처럼 뽑히지 않았어요.

“으라차차……. 어휴, 아무래도 혼자서는 못 뽑겠는걸.”

마음 착한 농부는 욕심쟁이 농부를 찾아갔어요.

“이보게, 미안한데 무 뽑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미안하면 부탁을 안 하면 되지 않나?”

“허허, 참.”

욕심쟁이 농부의 말에 기가 막힌 착한 농부는 다른 이웃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마지막 무를 뽑았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자, 한꺼번에 힘을 줘서 당겨 봅시다. 하나, 둘, 셋! 영차영차!”

마침내 꿈쩍도 하지 않던 무가 속 뽑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무가 사람보다 더 컸어요.

“무가 이렇게 크니 장에 내다 팔면 큰돈을 받을 수 있겠는걸.”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어요.

“아닐세, 이 무는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사또 나리께 가져다  
드릴 것이요. 일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돌봐 주시지  
않았소?”

마음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무를 깨끗한 짚으로 잘 싸서 사또를 찾아갔  
어요.

“사또 나리, 덕분에 일 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무를  
드리니 받아 주십시오.”

사또는 마음 착한 농부가 가져온 무를 보고 놀랐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이렇게 큰 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귀한 것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여봐라,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 농부에게 주어라.”

그러자 하인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오며 말했어요.

“사또 나리,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얼마 전에 들어온 송아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무를 주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갖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농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흠, 그 어리석은 농부가 무를 바치고 송아지를 받았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는 더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지. 그러면 더 큰 상을 주실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욕심쟁이 농부는 집에 하나밖에 없는 송아지를 끌고 길을 나섰어요.

‘흐흐, 송아지를 바치면 최소한 금덩이 하나는 주시겠지?’



## 이야기 들려주기

욕심쟁이 농부는 신이 나서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나리, 일 년 동안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송아지가 이렇게 토실토실 살이 올랐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드리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십시오.”

사또는 욕심쟁이 농부가 송아지를 바치자, 기분이 좋아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송아지를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여봐라,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 농부에게 주어라.”

사또가 하인에게 말했어요.

“사또 나리, 얼마 전에 들어온 큰 무가 제일 좋습니다.”

하인은 큰 무를 들고 나오며 말했어요. 이것을 본 욕심쟁이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망했어. 아까운 내 송아지를 어쩔꼬.’

이렇게 해서 욕심쟁이 농부는 송아지를 주고 큰 무를 받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마음씨 착한 농부가 하루도 쉬지 않고 밭에 나가 일하자, 곡식이 어떻게 자랐나요?

네, 온갖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지요. ‘무럭무럭’은 매우 건강하고 힘차게 잘 자라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한편, 욕심쟁이 농부의 송아지도 ‘토실토실’했어요. ‘토실토실’은 보기 좋을 정도로 통통한 모양을 의미해요. 이렇게 ‘무럭무럭’과 ‘토실토실’은 생명이 잘 자라는 모습을 뜻하지요. 여러분도 ‘무럭무럭’, ‘토실토실’ 잘 자라야 해요!

마음씨 착한 농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또에게 선물로 준 채소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무예요. 무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김치를 담글 때 무와 배추가 많이 필요해요. 무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서 버무린 김치를 깍두기라고 하지요. 한국에서는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김장 문화가 있어요. 김장할 때 많이 담는 김치가 바로 배추김치와 깍두기예요. 김치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송아지와 바꾼 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착한 농부는 자기의 밭일을 열심히 하면서 욕심쟁이 농부의 밭일까지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던 사또에게 커다란 무를 선물로 주고, 송아지를 받았지요. 이를 본 욕심쟁이 농부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사또에게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바쳤지만, 무를 받아 왔어요. 이처럼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는 게으르고 욕심 많은 농부보다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